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
 전화 : 86-10-6505-2671/3
 이메일 : beijingk@kita.net

1 中 31개 지역 2022년 GDP 발표...광둥, 장쑤, 산둥, 저장 순

- 최근 중국 지역별 2022년 GDP를 발표했으며 푸젠, 장시가 4.7%의 GDP 성장률로 공동 1위를 차지했고 GDP 규모는 22개 성·시가 2조 위안(한화 약 373조 원)을 넘었으며, 광둥과 장쑤의 GDP가 12조 위안(약 2,240조 원)을 달성함
- 광둥성 GDP는 1.9% 성장한 12조 9,119억 위안(약 2,411조 원)으로 13조 위안(약 2,428조 원)에 근접, 34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 장쑤성 GDP는 처음 12조 위안(약 2,240조 원)을 상회한 12조 2,876억 위안(약 2,295조 원)임
- 2022년 GDP 기준 1~10위는 광둥, 장쑤, 산둥, 저장, 허난, 쓰촨, 후베이, 푸젠, 후난, 안후이 임. 2023년 지역별 GDP 목표 성장률은 4~9.5%였으며, 하이난성이 9.5%로 가장 높았고 시짱(티벳)자치구가 8%로 그 뒤를 이었음. GDP 상위 4대 지역 중 광둥, 산둥, 저장은 5% 이상, 장쑤는 5% 안팎으로 정했음

자료원 : 인민일보 해외판

http://paper.people.com.cn/rmrbhwb/html/2023-02/06/content_25963180.htm

2 中, 2022년 해외직접투자 중 도소매업·제조업 투자 급증

-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2022년 중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전년 대비 5.2% 증가한 9,854억 위안(한화 약 184조 원)으로 집계(*달러환산 시 0.9% 증가한 1,465억 달러)
- 비금융 부문 직접투자는 7.2% 증가한 7,859억 위안(약 147조 원)이었으며, 해외 도급공사 매출은 4.3% 증가한 1조 425억 위안(약 195조 원), 신규 계약금액은 2.1% 증가한 1조 7,021억 위안(약 318조 원)을 기록함

- 한편 일대일로 주변국에 대한 투자는 3.3% 증가한 210억 달러, 도급공사 매출은 849억 달러, 신규 계약액은 1,296억 달러로 각각 전체의 54.8%, 51.2%를 차지함
- 도소매업 투자는 19.5% 증가한 211억 달러, 제조업 투자는 17.4% 증가한 216억 달러, 임대·비즈니스 서비스 투자는 5.8% 증가한 388억 달러로 집계됨
- 지역별로는 동부지역 기업의 해외 투자가 10.4% 증가하여 전체의 81.6%를 차지했고 광둥, 저장, 상하이시 기업이 각각 1~3위를 차지함

자료원 : 인민일보 해외판

http://paper.people.com.cn/rmrbhwb/html/2023-02/11/content_25964287.htm

3 中, 산둥성 소비 진작에 4억 위안(한화 약 737억 원) 자금 투입

- 산둥성 정부는 중점 비즈니스 유통 및 문화 분야의 소비 촉진에 3억 9,600만 위안(한화 약 737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힘
- 자동차, 요식업 소비쿠폰을 발행하고 할인을 실시하며, 소비촉진 이벤트 개최, 소비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하여 자동차, 가전, 숙박,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소비를 추진할 예정
- 올해 이미 특별채권 910억 위안(약 17조 원)을 발행하여 교통, 수력, 도시건설 등 분야의 600개 중점 프로젝트 건설을 지원하였고 기업 세수감면 정책도 출범하였으며, 기업들의 세수부담 158억 위안(약 3조 원)을 경감할 예정

자료원 : 인민일보 해외판

http://paper.people.com.cn/rmrbhwb/html/2023-02/11/content_25964359.htm

4 中, 2월 8일 택배 업무량 100억 건...코로나19 이전 초과 달성

- 중국 국가우정국에 따르면 2월 8일까지 택배 업무량은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보다 40일 앞당겨 100억 건을 달성하였음
- 2월부터 일평균 택배 업무량은 3.3억 건을 상회하면서 소비시장 회복에 활력을 부여함
- 택배업은 국내외 시장과 연결되어 있으며, 현재 광시 난닝, 항저우, 상하이 푸둥, 시안 등지 공항의 위엔통(圓通) 화물운송 항공편이 20편 이상으로 중국산 휴대폰 등 전자제품이 해외로 수출되고 외국산의 꽃게, 랍스터 등의 신선제품을 중국으로 수입하고 있음

자료원 : 인민일보 해외판

http://paper.people.com.cn/rmrbhwb/html/2023-02/10/content_25964115.htm

5 中, 전기차 충전설비 수요량 꾸준한 증가세

- 중국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2022년 신에너지차 생산량과 판매량은 각각 706만 대, 689만 대로 전년 대비 96.9%, 93.4% 급증하여 8년 연속 글로벌 1위를 달성하였고, 전기차 충전기 수요량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임
- 중국 전기차 충전인프라시설 촉진연맹에 따르면 2022년 충전설비 증가량은 259만 대이며, 이 중 공공 충전설비가 91.6% 증가하였고 자가 충전기가 225.5% 증가함. 2022년 12월까지 중국 내 전체 충전설비 보유량은 521만 대로 전년 대비 99.1% 증가하였음
- 귀하이(国海)증권은 2025년 중국의 신에너지차 비중은 39%, 신에너지차 보유량은 3,651만 대로 증가하고 충전기와 차량 비율이 1 : 2.2로 하락하여 2025년 충전기 보유량은 1,660만 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함
- 최근 공업정보화부 등 8개 부처는 '공공분야 차량 전동화 보급 시범업무 관련 통지'를 발표했으며 공공 충전기와 신에너지차 보급량 비율을 1 : 1로 규정. 이에 따라 광시, 네이멍구, 허난, 충칭 등 지역은 충전설비 설치 확대 계획을 밝혔음

자료원 : 경제참고보

http://www.ce.cn/cysc/ny/gdxw/202302/10/t20230210_38385733.shtml

6 中, 즉석 제조차 음료 시장규모 빠른 성장

- 중국프랜차이즈경영협회에서 발표한 '2022년 신식 차음료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신식 차음료 시장규모는 2017년의 422억 위안(한화 약 7.8조원)에서 2022년의 1,040억 위안(약 19.4조원, 점포수 48.6만 개) 성장, 2023년 시장규모는 1,450억 위안(약 27조원) 예상됨
*신식 차음료 : 상점에서 직접 제조·판매하는 각종 음료를 의미하며 과일주스, 야채주스, 유제품 등을 원료로 현장에서 제작한 액체 혹은 고체 혼합물
- 메이뚬에서 발표한 '2022년 차음료 발전보고서'에 따르면 점포수 기준으로 광저우, 선전, 상하이, 청두, 충칭, 포산, 난닝 등 도시가 앞자리를 차지함
- 아이메이컨설팅에 따르면 최근 신식 차음료는 원료 선택, 생산공정, 브랜드 마케팅 등 면에서 업

그레이드와 혁신을 거듭하며 젊은층의 소비 수요와 기호에 더욱 부합함. 신식 차음료 업체는 해외시장도 꾸준히 개척하고 있으며 신식 차음료 브랜드인 '시차(喜茶)'는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등지에, '나이쉘더차(奈雪的茶)'는 싱가포르, 일본 등지에 점포를 오픈함

- 한편 중국 정부는 신식 차음료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목표로 2021년 처음으로 업계 제품 표준인 '차음료 시리즈 단체표준'을 제정하여 밀크티, 나이까이차(奶盖茶, 차 음료 위에 두껍게 우유 크림을 덮은 것), 과일차, 탄산차, 냉침차 등 5종 제품 표준을 규정하기도 했음

자료원 : 인민일보 해외판

http://paper.people.com.cn/rmrbhwb/html/2023-02/09/content_25963952.htm

7 알리익스프레스 입점상가의 80%, 국경 간 전자상거래 수출 양호할 것 기대

- 국경 간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速卖通, Ali express) 조사보고에 따르면 80%의 상가가 2023년 중국 국경 간 전자상거래 수출이 양호할 것으로 전망함
- 가전 브랜드 메이디(美的)는 1월에 스페인, 프랑스, 러시아 등 국가의 주문을 받고 가전제품 천여 대를 수출하였고, 광둥성 순더시(顺德) 커피메이커 생산업체는 지난해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 한국시장에 진출하며, 올들어 캡슐커피기계 수출이 25% 증가하였다고 밝힘
- 알리익스프레스, Temu, SHEIN 등 다양한 국경 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물류, 점포 운영, 사후 서비스 등 입점상가들의 해외 수출 관련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자료원 : 경제참고보

http://www.jjckb.cn/2023-02/09/c_1310696324.htm

8 中, 1월 전기차 배터리 탑재량 전년 동기대비 0.3% 감소한 16.1GWh

- 중국자동차동력배터리산업혁신연맹에 따르면 2023년 1월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탑재량은 전년 동기 대비 0.3% 감소, 전월 대비 55.4% 감소한 16.1GWh(삼원계 배터리 5.4GWh, 리튬인산철 배터리 10.7GWh)로 집계됨
- 기업별 탑재량 1~3위는 여전히 CATL(宁德时代), BYD(比亚迪), CALB(中创新航)이고 기타 기업들은 순위가 변하면서 치열하게 경쟁 중임. CATL, BYD, CALB 탑재량은 각각 7.17GWh, 5.51GWh, 0.79GWh로 시장점유율은 각각 44.4%, 34.1%, 4.9%를 기록
- 지난해 1월 순위와 비교하면 Gotion(国轩高科), SVOLT(蜂巢能源), Farasis(孚能科技) 등은 순위가 하락

하고 EVE 에너지(亿纬锂能), Sunwoda(欣旺达) 등은 순위가 상승함. 12월 순위와 비교하면Sunwoda, Farasis, 루이푸란쥘(瑞浦兰钧) 등은 순위가 하락하고 EVE 에너지, SVOLT 등은 순위가 상승함

- 생산량을 보면 삼원계 배터리와 리튬인산철 배터리가 각각 9.8GWh, 18.3GWh이고 수출량은 총 7.9GWh로 삼원계 배터리와 리튬인산철 배터리가 각각 5.4GWh, 2.6GWh임
- 정부 당국의 신에너지차 보조금 정책 철회 및 시장가격 변동 등으로 1월 신에너지차 생산량과 판매량은 각각 42.5만 대, 40.8만 대로 전월 대비 46.6%, 49.9%, 전년 동기대비 6.9%, 6.3% 감소함. 이 중 순수전기차 생산량과 판매량은 전년 동기대비 각각 19.6%, 18.2% 감소하고, 하이브리드차 생산량과 판매량은 전년 동기대비 각각 48.5%, 42.5% 증가함

자료원 : 중국증권보

http://www.ce.cn/cysc/ny/gdxw/202302/13/t20230213_38388882.shtml

9 中, 2022년 해외 4개사 7종 영양소보충제 등록 비준

- 중국약보건의약품수출입상회에 따르면 2022년 해외 4개사 7종 영양소보충제가 중국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의 수입 등록증을 취득함(*미국, 캐나다, 호주, 한국의 비타민·미네랄 정제와 알약 등)
- 2022년 등록증을 취득한 영양소 보충제는 총 3,368건이며, 이 중 중국산 3,361건, 수입산 7건임
- 2022년 인증을 받은 건강기능식품은 250개사의 341종 제품으로 전부 중국산임. 인증을 받은 기능을 볼 때 1~3위는 면역력 제고(200건), 강혈지(45건), 신체피로 완화(35건)로 나타남

자료원 : 중국약보건의약품수출입상회

10 中, 2022년 28개 국가(지역) 의료기기 인증 비준...한국은 인증획득 4위

- 중국약보건의약품수출입상회에 따르면 2022년 28개 국가(지역)의 의료기기가 NMPA 인증을 받았으며 1~5위는 미국(226건), 독일(117건), 일본(69건), 한국(42건), 프랑스(26건)로 전체의 76.4%를 차지
- 의료기기 인증 대리업체는 18개 성·시에 분포되었고, 이 중 상하이시 대리업체(392개사)가 62.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 인증 건수가 많은 수입산 품목은 의료용 영상기기(75건), 무원 삽입기기(53건), 주입·관리·보호기기(注射、护理和防护器械, 50건), 구강기기(45건), 신경·심혈관수술기기(43건)로 나타남

자료원 : 중국약보건의약품수출입상회